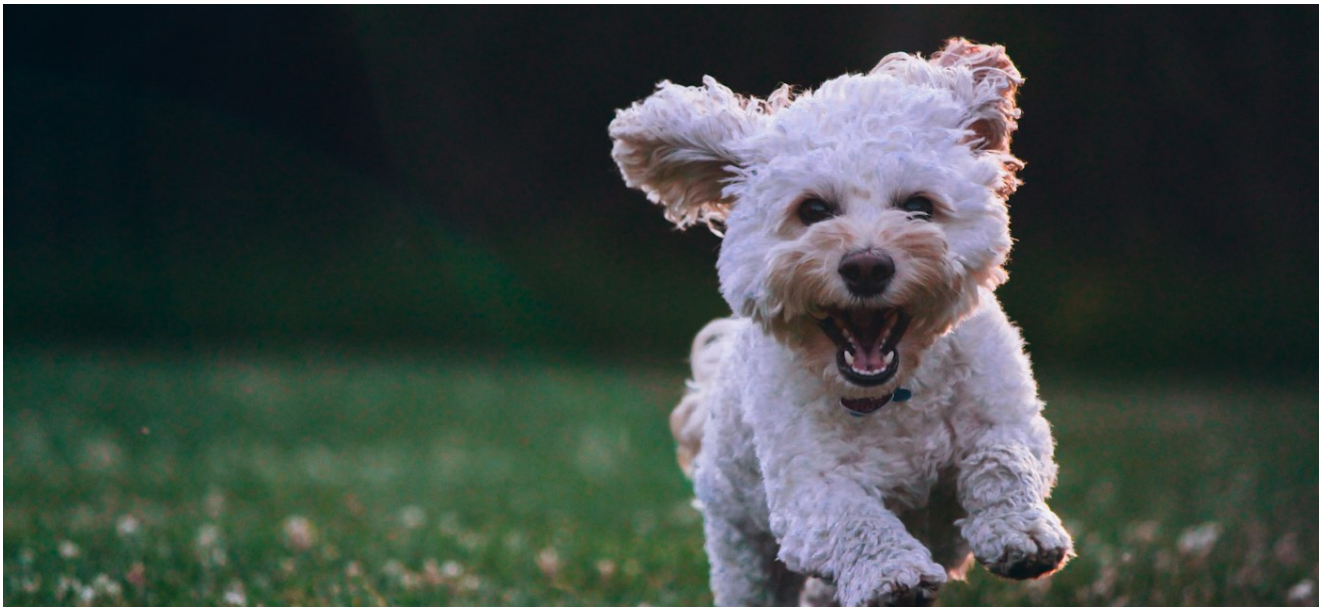
호루라기로 개 리콜을 21일 만에 가르치는 법

개가 고정된 호루라기 음 하나에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21일 계획과 각 단계의 근거가 되는 숫자.

작성자: Lubor Šimůnek · 게시일: September 26, 2026 · 교육
온라인 버전: https://appstoryo.com/ko/blog/how-to-train-dog-recall-with-whistle



호루라기 리콜이 통하는 이유는 고정된 하나의 음이 보호자의 기분에 따라 결코 달라지지 않고, 개가 그 음을 긴 수업 한 번이 아니라 짧은 매일의 반복 속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Dog Whistle Trainer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무료 오프라인 앱이며, 내장된 21일 리콜 프로그램이 하루 약 10분 동안 그 음을 음식과 연결해 줍니다.

공시: *AppStoryo*는 *Dog Whistle Trainer*를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합니다. 아래 비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하며 실제 대안 앱을 이름으로 밝힙니다.

Dog Whistle Trainer는 앱스토어에서는 Dog Whistle Trainer & Clicker, 구글 플레이에서는 Dog Whistle Trainer Pro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무료, 28 MB, iOS 13.0 이상, 44개 언어, 광고 없음, 계정 없음, 인앱 구매 없음입니다.

리콜에서 호루라기가 목소리보다 나은 이유는?

목소리는 기분을 싣고 다니지만 호루라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재미있는 일에 빠진 개를 세 번째로 부를 때쯤이면 목소리는 이미 날카로워져 있고, 개는 그 변화를 듣습니다. 호루라기 음은 1분째나 20분째나 똑같고, 보호자가 차분하든 화가 났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가기도 합니다. 1870년부터 호루라기를 만들어 온 ACME는 사냥견용 모델의 도달 거리를 공개합니다. 211.5는 5,700 Hz에서 울리며 조건이 좋으면 1.5 km까지 들리고, 가까운 작업을 위한 210.5는 약 90 m까지 효과적이라고 설명됩니다. 휴대폰 스피커가 1.5 km에 닿을 리는 없지만, 일관성이라는 논리는 어떤 거리에서도 성립하며 개가 Dog Whistle Trainer로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일관성입니다.

리콜에 호루라기의 정확한 주파수가 중요할까?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증거는 제조사 자신의 페이지입니다. ACME의 캐나다 제품 페이지는 210.5를 5,900 Hz 단일 주파수로 16.00달러에 소개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영국 안내서는 같은 210.5

모델이 6,200 Hz에서 울린다고 설명합니다. 한 회사가 한 호루라기를 두고 300헤르츠 차이를 냅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훈련한 개든 돌아옵니다.

개가 배우는 것은 다른 어떤 소리도 아닌 바로 이 소리가 발치에 음식이 기다린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음높이를 하나 골라 적어 두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프로그램 중간에 음을 바꾸는 것은 신호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신호를 만드는 일입니다.

21일 리콜 프로그램은 날마다 어떻게 진행될까?

스토어의 앱 설명에는 무료 프로그램 세 가지가 적혀 있고 21일 리콜이 그중 하나입니다. 네 개의 블록으로 진행되며 하루 약 10분, 5분씩 두 번의 세션으로 나뉩니다.

1. 1~5일, 실내에서 호루라기 충전하기. 조용한 방 하나. 음을 한 번 울리고 1초 안에 바닥에 음식을 놓습니다. 열 번 반복을 하루 두 번. 아직 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음식을 예고한다고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2. 6~10일, 옆방에서. 개가 적당히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을 한 번 울리고, 도착하는 순간에 값을 치릅니다. 무시하면 음을 반복하지 말고 직접 걸어가 그래도 값을 치른 뒤 내일 거리를 줄이십시오.
3. 11~15일, 울타리 있는 마당에서 롱리드를 달고. 같은 단일 음, 같은 즉각적인 지불에 이제 풀과 냄새와 거리가 더해집니다. 롱리드는 그대로 두십시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리콜을 협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줄입니다.
4. 16~21일, 진짜 방해 요소가 있는 바깥에서. 산책 한 번에 리콜은 두세 번까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언제나 값을 치르고, 언제나 개가 즐기던 것으로 다시 풀어 줍니다. 불린다는 것이 재미의 끝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Dog Whistle Trainer는 개마다 며칠째인지 기록합니다.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에서 개별 프로필을 따로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리콜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 연구는 뭐라고 할까?

대부분의 보호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고, 고통은 전혀 없습니다. 2020년 링컨 대학교 연구진이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에 시험 결과를 실었습니다. 목줄을 풀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가정견 63마리가 대상이었고, 그중 으뜸이 믿을 수 없는 리콜이었습니다. 개들은 21마리씩 세 집단으로 나뉘어 닷새 동안 최대 150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집단은 긍정 강화에 집중하는 독립 훈련사들이 맡은 쪽이었습니다. 한 번의 신호만으로 리콜 지시의 82.5%를 따랐고, 전기 목줄 집단은 71.0%였습니다. 돌아오는 속도도 빨라 평균 반응 시간이 1.13초 대 1.35초였습니다. 저자들은 그 의미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전기 목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근거는 없으며, 가장 흔히 거론되는 적용 사례에서조차 그렇다고 우리는 본다.

가장 흔히 거론되는 그 적용 사례가 바로 리콜이며, 이 프로그램이 음 하나와 주머니 가득한 음식으로 쌓아 올리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화면이 잠기고 무음이어도 호루라기가 울릴까?

울립니다. 이것은 마케팅 약속이 아니라 문서화된 플랫폼 동작입니다. 애플의 playback 오디오 세션 카테고리 문서는 무음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화면이 잠겨도 앱 오디오가 계속된다고 밝힙니다. 이 카테고리를 채택

한 앱은 산책 내내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어도 부르면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결과가 둘 나옵니다. 음은 에어팟이나 보청기가 아니라 휴대폰 자체 스피커로 나가므로 보호자의 귀가 아니라 개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꺼 둘 수 있으니 21일 계획은 세션 내내 화면을 켜 두어야 하는 영상 강의 앱보다 배터리를 훨씬 덜 씁니다.

실제로 어떤 앱을 써야 할까?

촬영된 커리큘럼을 원한다면 Puppr

- 전문 트릭 훈련사가 진행하는 100개 넘는 영상 강의와 팀과의 실시간 채팅.
- 미국 앱스토어에서 27,175개 평가, 평균 4.80으로 이 묶음에서 가장 높습니다.
- iOS 17.0 이상이 필요하고 영어만 지원하며 64.5 MB입니다.

초심자용 완결 강좌를 원한다면 Pupford

- 아주 유명한 훈련사의 30일 강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천둥 같은 소음에 둔감해지도록 돕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 3,724개 평가, 평균 4.77, 55.3 MB,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6일.
- 이쪽도 영어만 지원하며 iOS 16.6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기 언어로 폭넓게 쓰고 싶다면 Woofz

- 영상 강의, 행동 프로그램, 24시간 인공지능 도우미를 12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 55,970개 평가, 평균 4.57로 네 앱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 174.6 MB에 iOS 17.0 이상으로, 여기서 압도적으로 가장 무거운 선택지입니다.

신호 자체를 원한다면 Dog Whistle Trainer

- 호루라기, 지연이 적은 클리커, 21일 계획이 28 MB 안에 들어 있고 오프라인에서 계정 없이 작동합니다.
- iOS 13.0부터 돌아가 나머지 세 앱이 버린 기기까지 아우르며 44개 언어로 나옵니다.
- 영상 강의도 없고 질문할 사람 훈련사도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의 세 앱 가운데 하나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호루라기 리콜이 잘못된 도구가 되는 때는?

개가 듣지 못할 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주파 청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잃은 노령견은 어떤 음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정 문제가 아니라 수의사와 나눌 이야기이고, ACME도 잘 듣지 못하는 개에게는 더 낮은 210.5를 권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훈련하지 않은 비상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21일이 사 주는 것은 연습한 조건에서의 믿을 만한 리콜이지, 도로 옆에서 사슴 추격을 멈추는 개가 아닙니다. 증거가 달리 말할 때까지 롱리드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결코 교정 수단이 아닙니다. 음은 음식을 예고합니다. 끊거나 놀라게 하거나 벌주려고 울리면 개는 그 소리를 무시하도록 배우고, 이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살아남지 못하는 결말이 그것입니다.

Dog Whistle Trainer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입니다. 한쪽에서는 Dog Whistle Trainer & Clicker, 다른 쪽에서는 Dog Whistle Trainer Pro라는 이름이지만 스토어 이름만 둘인 같은 앱입니다.

호루라기 리콜 훈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바깥에서 호루라기가 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대부분의 보호자는 첫 닷새 안에 실내에서 믿을 만한 반응을 봅니다. 그 블록은 순수한 짝짓기 학습이고 경쟁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더 느립니다. 21일 계획의 마지막 주는 더 시끄러운 곳에서 첫 주를 다시 겪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입양한 성견에게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나이에 매인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흘려듣는 습관이 든 성견은 오히려 강아지보다 빨리 나아가는 일이 흔합니다. 호루라기는 그 이력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연상이 아직 하나도 붙지 않은 새 소리입니다.

12일째에 개가 음을 무시하면?

반복하지 마십시오. 걸어가 목줄을 부드럽게 잡고 그래도 값을 치른 다음 이틀 동안 앞 블록으로 돌아갑니다. 무시당한 신호를 반복하면 첫 신호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개에게 가르치는 셈이고, 이것을 되돌리는 데는 큰 비용이 듭니다.

개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할까?

둘 중 하나만 쓰고 동시에 쓰지 마십시오. 호루라기의 요점은 보호자가 불안할 때도 똑같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긴장된 목소리를 신호에 섞으면 보호자의 기분이 그대로 개에게 돌아가고, 음이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를 망가뜨립니다.

리콜마다 반드시 보상해야 할까?

21일 동안은 그렇습니다. 매번, 그리고 1초 안에. 그 뒤로는 자주, 예측할 수 없게 계속 값을 치르십시오. 가장 빨리 무너지는 리콜은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인 4주째쯤에 조용히 보상이 끊긴 리콜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호루라기 신호를 써도 될까?

됩니다. 목소리 신호에 견주면 진짜 장점입니다. 두 대의 휴대폰을 같은 음높이로 맞추면 개는 집안 모두에게서 일관된 하나의 신호를 받습니다. 누가 값을 치를지도 정해 두십시오. 음식은 음을 울린 사람 쪽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훈련할 수 있을까?

앞의 두 블록은 따로, 그다음은 함께 하십시오. Dog Whistle Trainer는 개마다 고유한 음높이와 날짜 계수를 가진 프로필을 저장합니다. 따로 진행하는 단계를 기억력 시험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휴대폰이 금속 호루라기만큼 클까?

그렇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211.5는 들판에서 1.5 km까지 소리를 실어 보내도록 만들어졌지만 휴대폰 스피커는 의도적인 음량 상한을 둔 근거리 도구입니다. 먼 거리의 야외 작업에는 금속 호루라기를 사십시오.

인용 형식: Lubor Šimůnek (2026). 호루라기로 개 리콜을 21일 만에 가르치는 법. AppStoryo, lapnito.cz s.r.o..
https://appstoryo.com/ko/blog/how-to-train-dog-recall-with-whistle

© 2026 lapnito.cz s.r.o.